

야권 '정진석·권성동 막말' 징계안 제출 초강수

정진석 "조선은 내부에서 썩어 망해"... 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민주당 "면책특권 이용 언어폭력·저주로 정치 품격 훼손"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 및 민생 위기 국면 타개를 모색하기보다 강 대강의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치가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감사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민생·정책 국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

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정진석은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반헌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반민족적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기주장을 고집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정감사 도중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정의당과 함께 징계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의

징계안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로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라고 발언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당시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김 이사장한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게 아니다. 내가 그런 경우라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김 이사장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권성동이 국정감사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언어폭력과 저주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전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 모욕죄나 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 경사노위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이처럼 야당이 고발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당도 맞고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져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에 파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외교참사·민생파탄 바로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의도 브리핑

"무용지물 '통합정보시스템' 예산만 낭비"

이병훈 의원 문광부 자료

정부가 지역 축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역대 예산을 들여 만든 통합정보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6년 3월 1억3800만원을 들여 '지역축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축제 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축제 현황과 통계, 지원 제도 등 축제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문체부는 시스템이 구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가 지역축제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또 다른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이중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축제 통합정보시스템을 1년 만에 운영을 종료해놓고, 또다시 다른 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한 것"이라며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방문진 "윤 대통령 순방중 비속어 발언, 왜곡 보도 아냐"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국감 출석... "148개 언론, 똑같이 듣고 썼다"

MBC 대주주이며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왜곡된 보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적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질의하자 "MBC가 날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 보도 경위를 살펴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 이사장은 "MBC뿐만 아니라 148개 언론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MBC가 날조했다고 표현할 수 있나.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언론은 취재원의 발

언을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말한 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보도 경위를 설명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언론이 MBC가 보도한 내용을 동일하게 들었다고 답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권 이사장은 "말한 대로 보도하는 것이 맞지만, 말한 것은 귀로 듣기 때문에 귀로 들은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MBC가 밝힌 바에 의하면 현장에 같이 있던 많은 기자가 그 단어들을 특정해서 그렇게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언 해석에 대한 소수 의견 보도나 주변

소음을 제거한 뒤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 "저배속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듣고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후에 소수의 견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MBC가 왜곡하고,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윤 의원의 질타에도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탄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반면, 권 이사장은 'PD 수첩'이 지난 11일 별도의 고지 없이 건전희 여사의 대역을 방송에 노출한 데 대해서는 "(MBC 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았고, (방송) 심의 규정 위반이라 MBC에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며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강보험 상병수당, 외국인 차별 없어야"

강은미 의원, 국감서 지적

정의당 강은미(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상병수당 차별을 지적하고 향후 시범사업에 고용허가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외국인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결혼이주민과 난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허가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1조8000억원에 달하고 수지율은 88.9%이다.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이 재정 건전성은 외국인들에게 기대고, 사회보장 제도는 차별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회보장 제도를 검토하여,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권고했던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이행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